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이론적 모형

Theoretical Frameworks to Predic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김 영 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Kim, Yeong Hee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Abstract

This article reviewed the research on factors associated with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Three major categories of factors were described, including background and context, individual traits and behaviors, and couple interactional processes. This review highlighted findings from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ies of the prediction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Particular attention was given to marital instruments and procedures that had a solid empirical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s related to measur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lso, empirically based intervention programs that had been designed to prevent marital distress and divorce were investigated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factors and conflict resolution styles. Finally, three theoretical frameworks were drawn from empirical literatures, marital measurement instruments, and programs for marital strength to predic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implications were described.

I. 서론

최근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현대인의 가치관 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족생활의 내용과 양식에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매우 변화되었을뿐 아니라 가족원의 역할이 불분명해져 현대가족은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표면화되고 이혼률이 증가됨에 따라 현대가족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러한 가족의 문제점은 주요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Glenn, 1990; Markman et al., 1994).

결혼생활에서의 부부관계는 성인이 가질수

있는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인간관계임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양육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Stachment & Hiebert, 1987) 결혼생활로 인한 불화나 갈등은 성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결혼생활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나 갈등은 가족원에게 여러 형태의 역기능적인 문제와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Coie et al., 1993). 성인, 특히 많은 여성들은 결혼생활의 문제로 심한 우울증이나 정서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춘애·박성연, 1993; Birchnell et al., 1984; Coyne et al., 1987),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쳐 작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Kiecolt-Glaser et al., 1993; Markman et al., 1994), 자녀들은 불안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내적인 문제로

행동장애나 비행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미경·박성연, 1991; Fincham et al., 1994; Patterson, Reid, & Dishion, 1992).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 동안 가족학자들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결정할 수 있는 예측인자를 밝혀내는데 많은 역점을 두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연구자들이 밝혀낸 결과는 가족생활교육자나 가족상담과 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에게 결혼생활을 강화시키고 현대가족의 위기와 도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왔다 (Glenn, 1990; Larson & Holman,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그 요인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가족학자들이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관련된 요인들을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밝혀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각 요인을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문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시말해서 각 요인들의 상호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매우 부족하여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역동적이고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변인 모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Doherty et al., 1993).

둘째,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개념적인 혼란과 더불어 평가도구에 대한 불일치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결혼생활의 질은 부부관계의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고 있으며, 결혼생활의 안정성은 결혼생활의 상태, 즉, 이혼이나 별거로 정의되고 있다 (Larson & Holman, 1994).

그러나 결혼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여러 개념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다차원성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역동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결혼생활의 안정성도 어떤 학자들은 단순히 이혼이나 별거의 현상으로만 평가한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혼이나 별거의 상태와 더불어 이혼이나 별거를 향한 주관적인 경향까지 측정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과학에서의 인과모델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한 인과모델 검증은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

한 바와같이 개념을 측정하는데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비슷한 개념을 측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분석하여 관련된 개념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1980년대 이후부터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예측요인 중 상호관계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비해 상호관계적 과정에 관련된 개념이 불명확하다. 즉, 상호관계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크게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력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 둘의 개념을 한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독립적이면서 상호연관성을 갖는 개념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결혼생활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력을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연관된 개념으로 여기고 있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이해하는데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적 과정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하고 의사소통 변인과 문제해결력 변수의 상호적 관계를 한 모델 안에서 규명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결혼생활은 매우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이에 관련된 요인들을 한 모델 안에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문헌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생활 강화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해보면 교육내용 중 '성차 (gender difference)에 대한 이해' 과정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Stanley et al., 1995) 선행연구는 단순히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관계나 차이관계를 입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인 성차를 한 모델 안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적 고찰을 바탕으로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세가지 이론적 모형을 가설하여 미래 이론적 모델 검증연구에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첫번째 모형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예측인자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가설적인 이론적 배경이다. 두번째 이론적 모형은 평가도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개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모형이다. 세번째는 실제적인 결혼생활 강화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하여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상호관련적 과정을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이다.

II. 이론적 모형 1: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예측요인에 의한 모형

Wambolt와 Reiss (1989)는 장기적인 연구를 통하여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배경, 개인의 인성특성, 상호작용과정 등 세가지 관련요인을 밝혀냈다. Cate와 Lloyd (1992)도 이 세가지 요인을 문헌고찰을 통해 밝혀냈는데 이들은 개인적 특성인 인성이 역동적인 관계에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간관계는 생태학적인 환경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관계는 사회환경적 배경안에서, 개인적 측면에서, 관계적 측면에서, 관련변수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바와같이 결혼생활에 관련된 예측인자를 크게 사회환경적 배경 요인, 개인적 요인, 관계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예측인자들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1. 사회환경적 배경 요인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결정해주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근원가족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현재 상황요인 등으로 나타나 있다. 근원가족(family of origin) 요인은 각 부부가 각기 자라온 자신의 가족배경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여부, 부모의 정신건강, 근원가족의 역기능적 요소, 부모의 지원망 정도 등이 이에 속한다.

1979년 이후의 연구는 부모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생활의 질도 높다는 Lewis와 Spanier (1979)의 가설을 계속 지지해왔다 (Glenn & Kramer, 1987; Greenberg & Nay, 1982; MaLanahan, 1988). Glenn 과 Kramer (1987)가 주장하듯이 부모의 결혼생활은 설명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결혼생활에 중요 관련요소로 보인다. MaLanahan와 Bumpass (1988)는 특히 편부모에게서 자란 여성의 결혼생활은 해체될 위험성이 높고, 남성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미치는 영향이 여성보다 더 크다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혼한 자녀는 결혼에 대한 책임성이 적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혼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Glenn & Kramer, 1987)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상태보다는 그러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근원가족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냈다. 가장 최근에 장기적 연구를 수행한 Holman과 그의 동료들 (1994)은 부모의 결혼생활, 부모-자녀관계, 가족환경적 배경 등이 자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혀냈다. 특히 남편의 가정환경적 배경이 아내보다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 또한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아내보다 남편의 가정환경적 배경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Vaillant (1978)와 Kelly와 Conley (1987)등도 1930년대에 결혼한 집단에 대한 장기적 연구를 통해 부모의 정신건강이나 가족환경적 요인등과 같은 근원가족 특성이 결혼생활이나 행복도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아냈다. Vaillant는 (1978) 부모가 정신적으로 불건전하고, 신경증적 수준이 높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이혼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한 후 1년에서 20년 사이에 이혼한 여성은 긴장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가족간에 애정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가족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고, 결혼한 후 20년에서 50년사이에 이혼한 남성들은 어머니와 너무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남자들의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ambolt와 Reiss (1989)의 연구를 살펴보

면 부모의 이혼 자체보다는 부모들의 갈등이 자녀들의 결혼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관련이 높으며, 표현적인 가족에서 자란 자녀의 결혼생활은 질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근원가족 요인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생활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두 부부다 표현적인 가족에서 자란 경우 여성의 결혼만족도에는 근원가족의 배경이 관계가 있지만 남성의 결혼생활에는 관계가 없었다. 아내가 갈등이 심한 가족에서 자란 경우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남편이 갈등이 심한 가족배경을 가진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원가족의 원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처음부터 반대한 결혼은 결혼생활의 문제점이나 이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Booth & Johnson, 1988; Cate, Huston, & Nesselrode, 1986; Kurdek, 1991; Whyte, 1990).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결혼연령이다 (Booth & Edwards, 1985; Glenn & Supancic, 1984; Martin & Bumpass, 1989; Sweet & Bumpass, 1988). 십대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결혼한 사람들은 그 후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이혼율이 2배나 높다 (Martin & Bumpass, 1989). 평균 결혼연령보다 늦게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생활은 Vaillant의 (1978) 연구를 제외하고는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교육, 수입, 직업, 사회적 지위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결혼생활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Martin & Bumpass, 1989; Glick, 1984; Kurdek, 1991, 1993). 즉, 교육의 정도가 낮고,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적은 직업을 가진 경우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결혼생활의 변화가 심해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Bahr & Galligan, 1984; Kurdek, 1993; Mott & Moore, 1979).

그러나 교육과 결혼생활의 안정성은 전적으로 일직선적인 선상의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즉, Houseknecht & Spanier(1980)의 연

구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보다 교육의 정도가 더 높은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들이 별거나 이혼을 더 많이 한다. Whyte (1990)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학력은 결혼생활의 질이나 안정성 또한 결혼생활의 문제점에 관계가 없지만 남편의 교육정도가 높으면 좀 더 안정되고 질이 높은 결혼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현재 상황적 요인으로는 가족생활주기와 내적·외적 압박요인이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생활의 질은 거의 모든 연구에서 곡선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Ade-Ridder & Brubaker, 1983; Anderson et al, 1983; Glenn, 1989). 즉, 평균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가족생활주기는 부모가 되기 이전 시기와 자녀를 떠나보낸 후이다. 그러나 Swensen (1981)의 연구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결혼생활의 어떤 질적인 측면이 가족생활주기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많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는 결혼기간이나 자녀에 따른 주기들을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하여야만 한다. 예를들면, 자녀가 없는 시기와 초기 부모단계 사이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Glenn, 1990) 이 시기의 구분은 단순히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녀를 가진 이후에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측정할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수보다는 결혼연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상황적 요인은 직업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에서 오는 외적압력이다 (Lewis & Spanier, 1979). Burr나 (1973) Lewis와 Spanier (1979)에 따르면 이러한 외적압박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결혼생활의 질이 높아짐을 주장했다. Lewis와 Spanier는 (1979) 내적압박이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내적압박은 근원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모의 과잉간섭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했다 (Benson et al., 1993). 우리나라도 부모의 과잉간섭은 실제로 결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배경요인이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임을 뚜렷하게 입증하고 있다.

2. 개인적 요인: 개인적 특성과 행동양식

결혼생활의 질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인성, 신체적건강, 정신적 건강에 초점을 두는데 주로 인성이나 정신적 건강에 역점을 둔 연구가 많다. 신체적 질병, 특히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 부부관계에 스트레스를 주어 결혼생활의 만족도나 안정도가 떨어지게 만든다 (Booth et al., 1986; Doherty & Campbell, 1988; Ell & Northern, 1990).

최근에 Swan (1992) 등은 결혼생활과 자아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책임을 더 많이 느끼고, 상대방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며, 상대방의 행복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겼다. 반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며 자신의 행복은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여겼다. 즉, 자아개념이 확고한 사람은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갖기 때문에 결혼생활이나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나 상호작용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감을 가지는 것이라는 자기부조화 이론 (Higgins, 1987, 1989, 1992)의 관점으로 결과를 설명하였다. 이 연구결과의 흥미로운 점은 개인의 자아개념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오랜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특성은 결혼 전이나 후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결혼전에 이미 형성된 인성이 결혼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결혼생활은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생활영역이다. 더욱이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서로 중요한 사람이고, 서로의 삶에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람이다.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자아개념이 부족하면 상대방의 심리적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Schafer et al., 1996).

Schafer (1996)의 최근연구에서 남편의 객

관적 자아개념은 우울증과 자아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결혼생활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주관적인 자아개념이 우울증과 상호작용하여 결혼생활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에도 나타난 바와같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중재시킬 수 있는 중재 변수가 인성이나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울증은 결혼생활의 행복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우울증이 개인적인 특성인지 결혼생활의 결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최규련, 1993, 1995; Schafer, 1996).

성차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다른 성격특성이 결혼생활의 질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내의 인성특성이 안정되고 야망이 높은 경우 남편보다 결혼의 안정성을 더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난다 (Wambolt & Reiss, 1989). 그러나 Strassli와 Howe (1987)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심리적인 적응도가 아내보다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더 상관관계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arson과 Holman (1994)은 문헌적 고찰을 통해 인성특성과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안정적인 인성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Lewis와 Spanier(1979)가 문헌적 고찰연구에서 찾아냈듯이 신경중적 행동과 같은 정신적 건강요인이나, 감정적 건강과 자아개념과 같은 인성특성이나 대인관계기술이나 보수성과 같은 행동요인들은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들 신경증, 감정적 건강, 정신적 건강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계속적으로 결혼생활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정아, 1996; Beach & O'Leary, 1993; Markman et al., 1987). 충동성은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Kelly & Conley, 1987). 사회성, 즉, 외향성은 결혼생활의 안정성과 질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있는 것으로 보인다 (Bentler & Newcomb, 1978). Larson과 그의 동료들은 (1992) 감정적 건강, 충동성의 절제, 자아존중감 같은 인성특성은

초기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역기능적인 인지가 결혼생활의 만족도나 안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조되었다 (Baucom & Epstein, 1990; Eidelson & Epstein, 1982; Larson, 1988, 1992). 최근의 장기적 연구에서 Kurdek (1993)은 관계에 대한 역기능적인 인지 즉,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에 불일치가 있으면 관계가 깨어진다는 등,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잘못된 생각이 이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역기능적인 잘못된 생각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편견 자체가 역기능적인 요소가 되어 그렇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Kurdek, 1993).

보수적인 태도나 행동이 결혼생활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소수의 연구에서 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나 행동을 갖고 있으면 결혼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Bentler & Newcomb, 1978; Demaris & MacDonald, 1993; Kelly & Conley, 1987; Whyte, 1990).

둘째,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Bentler & Newcomb, 1978; Holman et al., 1994; Kelly & Conley, 1987).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성특성이 성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강력한 뒷받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연구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연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직접적인 검증을 통하여 인성과 결혼생활과의 성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변수분석에서 인성요인은 대체적으로 일반적 요인보다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닌다고 하였다 (Bentler & Newcomb, 1978; Kelly & Conley, 1987). Bentler와 Newcomb (1978)의 장기적 연구에서 인성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예측인자로 나타난 반면 사회환경적 배경은 회귀분석에서 거의 영향력을 미치는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근원가족의 배경을 아는 것보다 상대방의 인성특성을 아는 것이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변수 경로분석 모델에서 근원가족 배경요인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보다는 인성이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넷째, 인성특성과 커플의 관계적 상호과정과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사실 결혼생활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인성이나 아니면 상호작용적 과정이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Kelly와 Conley (1987)는 인성특성의 관점이 최근에는 간과되고 있지만 결혼생활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데는 인성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자들은 파괴적인 의사소통이나 행동변화는 파트너의 인성특성의 파생물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인성특성과 부부의 관계적 측면은 상호작용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같이 인성특성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알려져왔고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Adams, 1946; Burgess & Wallin, 1953; Terman & Odern, 1947).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인성특성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변형시킬 수도 있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져와 과잉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즉, 인성특성은 결혼생활의 질이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기는 부부의 상호작용적 과정에 영향을 미쳐 결혼생활의 질이나 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3. 관계적 요인: 부부의 상호작용적 과정

부부의 관계적 요인인 상호작용적 과정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력, 의견일치도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특히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Noller & Fitzpatrick, 1990). Filsinger와 Thoma (1988)의 연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는 스트레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에게는 스트레스가 많다.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의견

일치의 빈도가 높고 (Schaap et al., 1988), 부정적인 감정을 덜 주고받으며 (Gottman, 1993; Levenson & Gottman, 1985), 배우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Noller, 1984), 같이 이야기 하는 시간이 많아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Kirchler, 1988). 결혼상담가들은 부부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부부가 떨어져 있는 하루동안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발견하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실제적으로 부부간에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chapp (1988)과 그의 동료들, 또한 Christensen (1988)은 불행한 부부는 행복한 부부보다 더 파괴적인 의사소통 행동과 갈등 회피 양상을 보인 반면, 행복한 부부는 부부간의 사회적-감정적 관계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불행한 부부나 행복한 부부 모두 갈등을 느끼고 있는 주제는 같았지만, 불행한 부부는 갈등의 빈도가 더 많았고, 갈등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더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갈등이 높은 주제는 의사소통 문제, 성관계, 상대방의 특이한 성격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의사소통 행동 연구에서는 불행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보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에 대해 더 솔직히 털어놓는 경향이 높은 것을 입증하였다 (Chelune et al., 1984; Balswick & Halverson, 1983).

Jacobson과 Moore (1981)의 관찰연구에서 보여지듯이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제가 불평보다는 일상생활의 결혼만족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Dickson-Markman (1988)과 그의 동료들의 일기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가 나누는 일상생활의 공통 대화는 직장, 가정생활유지, 다른 가족구성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대화, 음식에 관한 것이었다. 대체적으로 부부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적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싸울때나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둘 사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기연구

에서는 행복한 부부는 하루 보통 7시간 정도 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행한 부부는 하루 5시간 이하 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부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보내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등 갈등에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Kirchler, 1989).

불행한 부부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의사소통 행위는 비판, 불평, 조소적인 말 등과 같이 부정적인 것이었다 (Revenstorf et al., 1980; Ting-Toomey, 1983). Schapp (1988) 등은 불행한 부부들은 명령하고, 다투고, 비판하고, 창피를 주고, 변명을 많이하고, 행복한 부부들은 인정하고, 쉽게 동의하며, 유유머와 웃음이 많은 것을 입증했다. 또한 불행한 부부들은 상호적인 행동패턴에서 보상보다는 처벌을 더 많이 하고, 강압적이고도 학대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하며,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사건이 생기면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이와반면 행복한 부부는 서로 보상이나 애정을 주고받고,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사건이 생기면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한 배우자는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편이었고, 특히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문제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의 고조가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방해물 주고 있는 것같다고 해석하고 있다 (Notarius & Pellegrini, 1987). 이것은 Gottman과 Levenson의 연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갈등에 대한 신체생리적 반응이 높게 나타낼수록 남편의 결혼생활의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부부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서로간의 이해에 관해 너무 과잉적인 자신감이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Sillar와 Scott (1983)는 해석하였다.

장기적 연구에서도 보여지듯이 의사소통기술의 부족은 결혼생활의 불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Markman, 1981; Markman et al., 1987; Noller & Callan, 1989). 결혼생활의 감정표현에 있어서도 성차가 나타난다. 즉, 아내가 좀 더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더 비판적이다. 사실 아내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감정도 더 잘 표현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행동적 반응

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남성은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Gottman & Levenson, 1988).

최근 부부의 상호작용적 과정 연구는 점점의사소통 방식이나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갈등해결 방식이나 의견일치도에 관한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은 어떻게 부부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가와 어떤 문제점에 부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많은 연구가 갈등시의 의사소통 행동에 대해 불행한 부부와 행복한 부부의 차이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부 싸움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결혼의 불만족도와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Robert와 Krokoff (1990)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설명하는 20%가 남편의 회피/아내의 적대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남편은 결혼생활의 갈등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화해하는 역할을 하지만 갈등이 심할 때는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 (Gottman & Levinson, 1988). Christensen과 Heavey (1990)도 아내의 요구/남편의 회피 패턴은 아내가 제기한 문제를 의논할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입증했다. 부부간에 일치한다는 인지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의 적응도가 높거나 중간정도가 된다 (Margolin et al., 1985). 불행한 아내의 행동은 그렇지 않은 아내보다 상대방에게 더 부정적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높다.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아내들은 일반적으로 결혼관계에 더 마음을 쓰고 남편의 부정적인 반응에 더 신경을 쓴다.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는 서로 자신들의 불행에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비난을 많이 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

갈등해결방식이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모든 연구에서 일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즉,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갈등을 동의, 협상, 유머로 해결하고, 만족도가 낮을 때 부부는 갈등이 생기면 직접 충돌하거나, 갈등을 회피하거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또한 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다투려고 하고 남편은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관찰을 통해 측정하나 (Gottman & Krokoff,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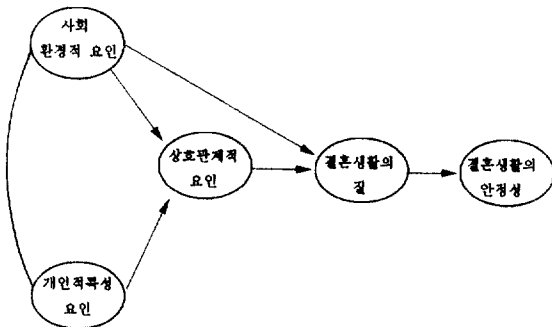
Heavey et al., 1993; Noller et al., 1994) 부부 모두 질문지를 통해 자기보고식의 평가를 해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Christensen, 1988; Heavey et al., 1993; Huston & Vangelisti, 1991; Noller et al., 1994).

Huston과 Vangelisti (1991)는 한 배우자가 자신의 갈등해결 행동을 변화시켰을 때 상대방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관련된 변수의 독립성과 상호작용성에 대한 모순점을 안고 있어 그 결과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Kurdeck (1995)은 갈등해결방식을 충돌, 회피, 복종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결혼의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해결 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었고, 서로 다른 갈등해결 방식이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복종, 충돌, 회피 수준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회피방식은 남편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느냐에 상관없이 서로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미래연구는 아내가 왜 회피적인 갈등해결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Bradbury와 Fincham (1993)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회피방식이 결혼생활을 강화시킨다는 결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내의 문제인지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유추된다. 남편이 충돌방식을 취하고 아내가 회피방식을 취하는 부부의 남편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의 결혼생활 관여도가 너무 높거나 혹은 세력이 낮은 남편이 충돌로 자신을 보상하려는 방편이 된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Babcock et al., 1993).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내가 회피방식을 자주 사용하지 않을때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영역이다. Gottman (1993)이 지적하였듯이 갈등을 회피하면 장기적으로 감정적인 거리를 넓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남편의 해결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아내의 갈등해결방식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사회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은 어려서 부터 '관계전문가'로서 사회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Worrell, 1988).

이와같이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환경적 요인, 개인적 특성 요인, 상호관계적 요인등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뉘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러한 변수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들 사이에 안보이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함을 알 수 있다. 문헌고찰의 결과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특히 장기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이 세가지 예측요인이 어떻게 상호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바이다 (그림 1).



<그림 1> 이론적 모형 1

그림 1의 모형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헌적 고찰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부부간의 상호역동적 관계와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상호역동적 관계와 상호작용하여 간접적인 영향력도 갖는다. 개인적 특성 요인은 결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기 보다는 상호 관계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 나타나있다. 무엇보다도 결혼생활의 질이나 안정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상호관계적 요인이었는데 그림1의 모형에 나타난 바와같이 상호관계적 요인은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III. 이론적 모형 2: 결혼 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구를 통한 모형

결혼생활을 평가하는 방법은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평가하는 주관적인 방법과 연구자가 평가하는 객관적 방법이 있다 (Olson, 1977). 1970년대의 연구에서는 주로 연구자가 평가하는 객관적 평가방법이 우세하였으나, 내적 평가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혼생활을 직접 평가하게 되었다. 주관적 자료를 이용한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부부간의 관계가 불행한 경우에는 문제점이 더 늘어나 실제행동과 상호작용사이의 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자신이 희망하는 질문사항에 답하는 경향이 높으며, 결혼생활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키고, 측정도구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Elwood & Jacobson, 1982; Noller & Fitzpatrick, 1990).

이에 따라 최근에는 부부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제 행동관찰을 통한 코딩체계를 세우기 위해 연구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헌에 나타난바에 의하면 주로 Couples' Interaction Scoring System (Notarius, Markman, & Gottman, 1983, 1994)과 Marital Interaction Scoring System (Weiss & Summers, 1983)이 행동관찰법으로 쓰이고 있다. 코딩의 범주는 관찰자의 추론에 더 많이 의존해야하는 추상적인 것부터 (예를 들면 방어행동 같은 것, Margolin & Basco, 1984)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과 같은 구체적인 것까지 세분되어 있다 (Fitzpatrick & Dindia, 1986). 그러나 추상적 내용에 대한 행동체계 관찰의 분석 결과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험장면을 집을 택하느냐 실험실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집에서 행동체계를 연구했을 때 실험실보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 보인다고 (Gottman, 1994). 대부분 실험내용은 의사소통 행동으로서 문제 해결방식 (Schaap et al., 1988; Ting-Toomey, 1983), 애정적 표현 (이경희, 1995; Guthrie

& Noller, 1988), 인과적인 상호작용 (Fitzpatrick, 1988; Levenson & Gottman, 1981, 1985)을 측정 평가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자기보고식의 측정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전형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는데는 관찰보다는 자기보고식을 통한 주관적 평가가 더 유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Noller & Guthrie, 1990). 자기보고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객관적인 자료와 더불어 자기관찰이나 일기를 연구에 포함시킨다 (Kirchler, 1988). 최근 Gottman과 Levenson (1985, 1994)은 자기보고식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평가하고, 상대방의 애정을 평가하며, 자신들의 상호작용을 비디오를 통해 재관찰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고안해서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같이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Schumm (1991)이 고찰한 바와 같이 결혼생활의 질은 세가지 기본형태로 측정되었다. 첫번째는 1975년 이전 방법으로 여러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측정하여 전체 측정점수를 다 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Locke-Wallace (1959)의 Marital Adjustment Test가 대표적이다. 이 측정방법은 개인적 차원에서 결혼생활의 질을 평가하여 부부간의 관계적인 면을 살펴볼 수 없다는 비판을 가져오고 있다.

두번째로, 1970년대와 80년대는 결혼생활의 질을 관계적 차원과 적응적 차원을 고려하여 총체적인 개념을 여러가지 하위개념으로 개념-조각화하여 측정한 방법이 만연했다. 이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Spanier (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로 결혼생활의 질을 만족도, 일치도, 응집도, 애정적 표현 등 네가지 하위개념으로 규정되었다. 최근 이 측정에 대한 비판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는데 Huston과 Robins (1982), Norton (1983), Huston et al. (1986), Bradbury (1987) 등은 의사소통과 갈등을 한 측정도구로 평가되는데 대해 비판을 가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과 갈등은 상호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Johnson과 그의 동료들은 (1986) Spanier의 Dyadic Adjustment Scale이 이론적이나 개념적인 틀을 바탕으로 하기보다

는 실증적인 것에 바탕을 이룬 총체적인 측정도구라고 비판을 가해왔다.

다른 것은 Orden-Bradburn (1968)의 Marriage Adjustment Balance Scale로 결혼생활의 질을 행복도와 긴장도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Zeller와 Carmines (1980)가 지적한바와 같이 결혼생활의 질을 행복도와 긴장도로 측정하게 되면 한가지 측정도구에서 두가지 반대개념을 측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세번째는 Fincham과 Bradbury (1987), 또한 Sabatelli (1988)가 주장한 전체 개념으로서의 결혼생활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결혼생활의 질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 여러가지 개념으로 보다는 전체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Norton (1983)의 Quality Marriage Index와 Schumm (1986)과 그의 동료들이 제작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번째 방법이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으나 측정항목이 많다는 이유로 두번째 방법이 아직 혼합되어 쓰이고 있다.

결혼생활의 안정성은 1970년 초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단순히 이혼이나 별거를 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할 경향이 있거나 현재 결혼생활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경향이나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책임력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실 이 개념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하에서 측정했을 때 결국 이혼까지 몰고 가는가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측정하는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즉, 어떤 사람은 이혼할 경향이나 현재 결혼생활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경향이 높으면서도 아직 결혼생활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현재 결혼생활의 선택 범위가 최소화되어 있고 책임력의 강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미래연구는 이러한 것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결혼생활의 관계로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측정은 결혼에 대한 태도로 Edmond (1967)의 Marital Conventionalization Scale이 대표적이다. 이 측정도구는 결혼생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결혼생활의 적응도를 측정하

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내적일치성이 뚜렷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Schumm (1991)은 결혼생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수량적 연구보다는 질적인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개인이 결혼에서 이루고 싶은 희망사항은 결혼생활의 책임과 서로 연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필요하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 두개념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지만 평가도구 분석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1) 두 개념을 하위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결혼생활의 관계를 측정하는데는 결혼생활의 고통이나, 갈등, 문제, 불일치, 부

정적 상호작용, 채워지지 않은 욕구등, 관계에 대한 좌절, 경계를 벗어나는 것등을 측정한 측정도구이다. 이러한 측정도구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측정하는 내용항목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도구는 결혼생활의 응집도나 일치도와 구별해서 명확한 개념을 구분할 타당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측정도구의 중요성은 무엇이 서로를 참아내고 만족할만하게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인 이론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외에 결혼생활을 가족이나 결혼생활의 만족도 혹은 적용도로 측정한 가족생활의 측정 방법인데 대표적인 것이 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것이 없어 미래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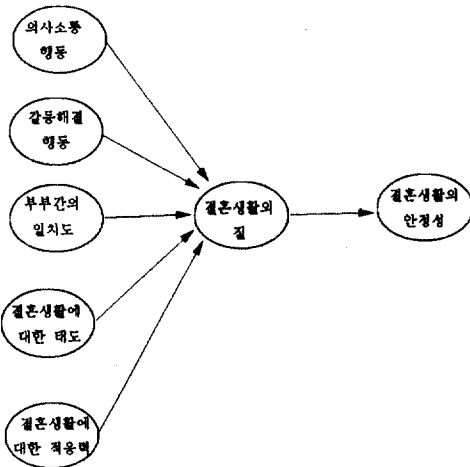
<표 1>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

제작자(년도)	측정도구	측정형태	측정변수
Aziin et al.(1973)	Marital Happiness Scale	질문지	결혼생활의 행복도
Bahr et al.(1983)	Marital Satisfaction	질문지	결혼생활의 질과 만족도
Beier et al.(1978)	Beier-Sternber Discord Questionaire	질문지	결혼생활의 불화, 갈등, 행복도
Booth et al.(1983)	Nebraska Scale of Marital Instability	질문지	결혼의 안정성,이혼성향
Bowen(1983)	Marital Quality Scale(MQS)	질문지	애정적 표현, 여가생활, 합의도, 만족도, 의사소통
Burgess(1939)	Marriage Adjustment Form	질문지	결혼생활의 적용도 또는 만족도
Burgess(1939)	Marriage Prediction Schedule	질문지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관련된 변수
Edmonds(1967)	Marital Conventionalization (MC) Scale	질문지	결혼에 대한 개인의 잘못된 인지도
Gilford et al(1979)	Two-Factor Marital Satisfaction	질문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Green(1983)	Inventory of Alternative Attractions(IAA)	질문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배우자의 매력점
Hendrick(1988)	Relationship Assessment Scale	질문지	결혼생활의 만족도
Honeycutt(1986)	Satisfaction with Marital Issues and Topics(SMI)	질문지	결혼생활의 만족도
Hoskins(1986)	Partner Relationship Inventory(PRI)	질문지	관계에 필요한 상호작용적, 감정적, 성적 욕구와 갈등영역
Johnson et al(1986)	Nebraska Svale of Marital Happiness	질문지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행복도
Johnson et al(1989)	Nebraska Scale of Marital Problems	질문지	결혼생활에 문제를 가져오는 개인적 특성과 행동
Kelso(1984)	Measure of Marital Satisfaction(MMS)	질문지	결혼생활의 갈등영역
Kinnaird(1986)	Attitudes toward Marriage Scale	질문지	결혼에 대한 태도
Kinnaird(1986)	Family Atmosphere Questionaire	질문지	가족의 조화와 갈등
Locke-Wallace (1959)	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Test(MAT)	질문지	배우자와의 만족도, 일치도, 협동력

Manson(1962)	Marriage Adjustment Inventory(MAI)	질문지	결혼생활의 적응도
Miller(1982)	Marital Satisfaction Scale	질문지	결혼생활의 만족도
Morgan et al(1987)	Scale of Permanence/ Pragmatism in Close Relationships(PPCR)	질문지	결혼생활의 책임과 의무
Murstein et al(1983)	Commitment Attitude Questionnaire	질문지	결혼관계의 연속성과 애정정도
Neal et al(1976)	Family Alienation	질문지	남편과 아내의 애정정도
Norton(1983)	Quality Marriage Index(QMI)	질문지	결혼관계의 질
Nortorius et al(1983)	Marital Agenda Protocol	질문지	결혼한 커플의 관계적 유효도와 문제영역
Olson et al(1985)	Enrich & Prepare	질문지	혼전관계나 결혼관계에서의 개인적, 대인관계적, 외부적 문제점
Orden et al(1968)	Marriage Adjustment Balance Scale(MABS)	질문지	결혼만족도
Pless et al(1973)	Family Functioning Index(FFI)	질문지	결혼만족도, 불일치, 행복도, 의사소통, 시간보내기, 문제해결
Rauch et al(1974)	Coding Scheme for Interpersonal Conflict(CSIC)	행동관찰법	관계의 갈등 정도
Roach(1981)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	질문지	결혼만족도
Rofe(1988)	Marital Happiness Scale	질문지	결혼만족도와 행복도
Rust et al(1986)	Golombok Rust Inventory of Marital State(GRIMS)	질문지	결혼만족도
Sabatelli(1984)	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 (MCLI)	질문지	결혼생활에 대한 경험, 기대, 불만
Schumm et al(1986)	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KFLS) Scale	질문지	가족관계의 만족도
Schumm et al(1986)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질문지	결혼만족도
Snyder(1979)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MSI)	질문지	결혼만족도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Spanier(1976)	Dyadic Adjustment Scale(DAS)	질문지	결혼생활의 적응도
Star et al(1985))	Marriage Satisfaction Survey	질문지	결혼만족도
Swensen et al(1975)	Scale of Marriage Problems	질문지	결혼생활의 문제점
Udry(1981)	Marital Alternative Scale	질문지	현재 배우자의 유효도
Weiss et al(1980)	Marital Status Inventory(MSI)	질문지	결혼상태의 연속성
White et al(1986)	Nebraska Scale of Marital Disagreement	질문지	결혼생활의 불화정도
Gottmann(1994)	Rapid Couples Interaction Scoring System(RCISS)	질문지	상호작용정도
Myers et al(1991)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질문지	결혼생활의 문제영역
Williams(1979)	Marital Satisfaction Time Lines(MSTL)	질문지	상호작용의 만족도

Handbook of Marriage and Family (1991)를 토대로 이루어진 표1의 평가도구 고찰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어떻게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개념화하고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전춘애·박성연, 1993; Schumm, 1991). 그러나 선행연구나 측정도구에 나타난 바로는 결혼생활의 질은 배우자와의 관계나 적응적인 측면에 더 역점을 두어 결혼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결혼생활의 안정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혼생활에 무슨일이 일어났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결혼생활의 안정성은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려된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구를 분석해 그림2와 같은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바이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생활의 질을 평가하는데 주로 쓰였던 개념을 의사소통 행동, 갈등 해결 행동, 부부간의 일치도,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력



<그림 2> 이론적 모형 2

IV. 이론적 모형 3: 결혼생활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모형

결혼생활의 강화 프로그램은 주로 예비부부나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다. 결혼생활의 불화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세가지 주요 접근법 - (1) 자아인식과 의사소통의 증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미네소타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같은 것, Miller et al., 1975), (2) 의사소통과 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관계 증진 프로그램, Guerney, 1977), (3)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프로그램 (PREP, Renick, 1992) 등이다.

Wampler와 Sprenkle (1980)은 미네소타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Minnesota Couples Communication Program: MCCP)의 효과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부들이 통제집단이나 위조집단보다 의사소통 기술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kin (1983) 도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기적인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강화증진 프로그램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RE, Guerney, 1977)도 자아표현이나 감정이입등의 기술을 강의나 직접적인 실습으로 가르치는데 이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자아표현, 감정이입, 관계에 대한 적용, 친밀감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very et al., 1980; Ridley et al., 1982).

Markman (1979, 1981, 1984)은 장기적 연구를 통해 결혼전이나 후 모두 의사소통의 질이 관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을 밝혀내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Stanley와 Floyd와 더불어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관련된 의사소통 기술을 커플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PREP (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PREP 프로그램은 경험적으로 실증된 프로그램이고, 결혼생활의 불화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을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단기적 장기적 효과의 검증이 여러가지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Fowers et al., 1986; Markman & Hahlweg, 1993; Markman et al., 1994).

PREP 프로그램은 6주를 기본으로 하여 한 회당 2시간에서 2시간 30분씩 이루어지는데 4명에서 8명의 커플이 집단으로 구성된다. PREP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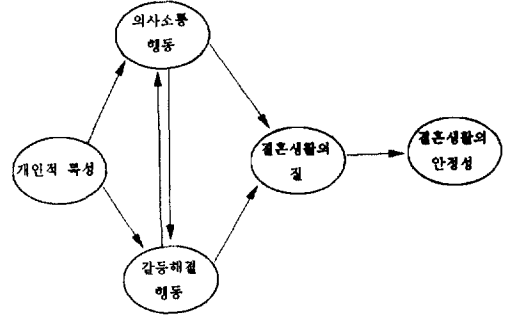
<표 2> PREP 프로그램 내용

기본 단위	강좌	교육 내용
1 주	1 강좌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조에 대한 소개 성역할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
	2 강좌	효과적인 말하기와 듣기
2 주	3 강좌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
	4 강좌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간의 애정나누기
3 주	5 강좌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기
	6 강좌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기
4 주	7 강좌	갈등문제해결 기술
	8 강좌	부부 협력체제의 형성
5 주	9 강좌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가치와 믿음에 대한 이해
	10 강좌	정신적 가치와 믿음에 대한 상호교류
6 주	11 강좌	성적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12 강좌	의사소통의 상호 책임성 인식 마무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생활 강화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 서로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개인적 특성 부분인 자아인식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은 상호연관성이 높아 모든 프로그램의 주류를 이루는 교육내용으로 나타나 있다. 최근 Stanley와 그의 동료들은 (1995) 의사소통 행동과 갈등해결 행동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관련적인 변수로 측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화나 분노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결혼생활 강화 프로그램에 감정 다루기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첨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Gottman (1994)은 개인적 특성이 이혼을 예측하는 중요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인적 특성이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에

상호작용 하여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이러한 역동적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결혼강화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림 3과 같은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바이다.



<그림 3> 이론적 모형 3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이 경과해도 잘 변하지 않는 개인적 특성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상호관계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또한 Huston과 Robins (1982), Bradbury (1987)가 주장한 바와같이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은 상호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각기 두 요소는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림 3은 도식하고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 평가도구, 결혼생활 강화 프로그램등의 고찰을 통하여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White (1990)가 지적했듯이 문헌적 고찰을 통해서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들의 상호적 연관성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알기가 매우 어려웠고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이나 관련된 배경요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헌 전반에 걸쳐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예측하고 결정하는 요인은 사회환경

적 배경요인, 개인적 특성 요인, 상호관계적 과정 요인등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상호관계적 요인이 가장 높았고, 개인적 특성은 결혼생활의 질이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상호관계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은 결혼생활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이 점점 최근의 연구에서 더 부각되고 있어 미래 연구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최근 Holman과 그의 동료들은 (1994) 결혼생활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에 개인적인 차원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개인의 감정적 건강, 감정적 성숙도, 감정이입도, 자아표현력, 자아존중감, 개방성, 물질 의존도, 근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성등과 같은 요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Higgins (1987, 1989)가 주창한 자아부조화 이론은 결혼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개인의 부조화로 일어나는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결혼생활을 하는 개인이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슬픔, 실망, 불만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현상은 결혼생활에 대해 낙담하거나 의기소침 현상을 불러 일으켜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 결혼생활에 대한 의무적 자아의 수준에 머무르지 못해 자신의 임무나 책임이 자신이 생각한 만큼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공포, 걱정, 공포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 양상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문헌적 고찰을 통해서도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가장 큰 상대적 영향력을 가진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미래연구는 개인적인 측면의 연구에서 벗어나 커플이나 그룹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커플이나 그룹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잘 계획된 연구디자인과 고차원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연구결과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학자들은 단순히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변수만을 연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결혼생활을 준비하고 영위하는 가족을 교육시키고, 상담해야 하며, 대인관계적 기술을 가르쳐서 각 가족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관계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도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래연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다각적 차원에서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예를들어 단순히 근원가족의 구조만을 살펴보았을 때는 자녀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나 안정성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갈등, 애정, 응집력과 같은 것을 측정하면 자녀들의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생활의 질을 개념적인 구조로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가 아니면 총체적인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가를 한 연구모델 안에서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미래연구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성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면 남성과 여성을 같은 모델 안에서 비교연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은 횡단적 연구안에서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이다. 따라서 미래연구는 제시된 이론적 모형의 실증적 검증을 수행하여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더불어 가족생활교육자나 가족상담이나 복지 실무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송정아(1996). 사회심리적 변인에 의한 중년기 부부의 위기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79-92.
- 이경희(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5-248.
- 전춘애, 박성연(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

- 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1(2), 81-96.
- 정혜정(1995). 가족치료에 대한 사이버네틱 인식론의 문헌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3), 59-70.
-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61-84.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미경, 박성연(1991). 부모교육경험이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9(3), 191-207.
- Adams, D. R. (1946). The prediction of adjustment in marriag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 185-193.
- Ade-Ridder, L. & Brubaker, T. H. (1983). The quality of long-term marriages. In Timothy H. Brubaker (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Anderson, S.A., Russel & C.S., Schumm, W.R. (1983). Per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ies: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27-139.
- Avery, A.W., Ridley, C.A., Leslie, L.A., & Mulholland, T. (1980). Relationship enhancement with premarital dyads: A six-month follow-up.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8, 23-30.
- Babcock, J. C., Waltz, J., Jacobson, N. S., & Gottman, J. A. (1993). Power and violence: The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power discrepancies, and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40-50.
- Baucom, D. H., & Epstein, N. (1990).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Beach, S. R. H. & O'Leary, K. D. (1993). Dysphoria and marital discord: Are dysphoric individuals at risk for marital maladjust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9, 355-368.
- Benson, M.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63-672.
- Bentler, P. M., & Newcomb, M. D. (1978). Longitudinal study of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053-1070.
- Birtchnell, J., & Kennard, J. (1984). Early and current factors associated with poor quality marriages, Social Psychiatry, 19, 31-40.
- Booth, A., & Edwards, J. (1985). Age at marriage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67-75.
- Booth, A., & Johnson, D. (1988). Premarital cohabitation and marital success, Journal of Family Issues, 9, 255-272.
- Booth, A., Johnson, D. R., White, L. K., & Edwards, J. N. (1986). Divorce and marital instability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7, 421-442.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3). Assessing dysfunctional cognition in marriage: A re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liefs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5, 92-101.
- Burgess, E. W., & Wallin, P. (1953). Engagement and marriage. New York: Lippincott.
- Cate, R. M., Huston, T. L., & Nesselroade, J. R. (1986). Premarital relationships: Toward the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 pathways to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 Psychology, 4, 3-22.
- Cate, T. M., & Lloyd, S. A. (1992). Courtship. Newbury Park, CA: Sage.
- Chelune, G., Waring, E. M., Vosk, B. N., Sultan, F. E., & Ogden, J. K. (1984). Self-disclosure and its relationship to marital intima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 216-219.
- Christensen, A. (1988).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s in couples In P. Noller & Mary Fitzpatrick(10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Clevedon, England, and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 Coie, J., Watt, N., West, S.G. Hawkins, J.D., Asarnow, J.R., Markman, H.J., Ramey, S.L., Shure, M.B., & Long, B. (1993). The science of preven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some directions for a national research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48, 1013-1022.
- Coyne, J.C., Kahn, J., & Gotlib, I.H. (1987). Depression. In T. Jacob (Eds.), Family interaction and psychopathology: Theories, methods, and findings. New York: Plenum Press.
- DeMaris, A., & MacDonald, W. (1993). Premarital cohabitation and marital instability: A test on the unconventionality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99-407.
- Doherty, W. J., & Campbell, T. L. (1988). Families and health. Newbury Park, CA: Sage.
- Doherty, W. J., Boss, P. G., LaRossa, R., Schumm, W. R., & Steinmets, S. K. (1993).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In P. G. Boss, W. 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 S. K. Steinmets(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pp. 3-30). New York: Plenum.
- Edmond, V.H. (1967). Marital conventionalizati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681-688.
- Elwood, R.W., & Jacobson, N.S. (1982). Spouses agreement in reporting their behavioral interactions: A clinical replic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783-784.
- Eidelson, R. J., & Epstein, N. (1982). Cognition and relationship maladjustment: Development of a measure of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715-720.
- Ell, K., & Northen, H. (1990). Families and health car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Filsinger, E. E., & Thoma, S. J. (1988). Behavioral antecedents of relationship stability and adjustment: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85-795.
- Fincham, F. D., & Bradbury, T. N. (1987). The assesment of marital quality: A reevalu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9, 797-809.
- Fincham, F. D., & Bradbury, T. N., & Scott, C. K. (1990). Cognition in marriage. In F. D. Ficham & T. N. Bradbury (Eds.), The psychology of marriage: Basic issues and applications(pp. 118-149). New York: Guilford.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N.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Fitzpatrick, M. A., Dindia, K. (1986). Couples and other strangers: Talkative in spouse stranger

-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13, 625-652.
- Fowers, B. J., & Olson, D. H. (1986). Predicting marital success with PREOARE: A predictive validity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2, 403-413.
- Glenn, N.D., & Kramer, K.B. (1987). The marriages and divorces of the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11-825.
- Glenn N, D., & Supancic, M. (1984). The social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divorce and sepa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update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563-575.
- Glenn, N.D. (1990). Quantitative research on marital quality in the 1980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18-831.
- Glick, P. C. (1984). Marriage, divorce, and living arrangem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5, 7-26.
- Gottman, J. M. (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15.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Erlbaum.
- Gottman, J. M., &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 Gottman, J. M. & Levenson, R.W. (1988). The social psychophysiology of marriage. In P. Noller and M. Fitzpatrick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 Gottman, J. M., & Levenson, R. W. (1992). Marital processes predictive of later dissolution: Behavior, physiology,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16-27.
- Greenberg, E. F., & Nay, W. R. (1982).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instability reconsidere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335-347.
- Gurney, B. G. (1977). Relationship enhance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Guthrie, D. M., Noller, P. (1988). Spouses' perceptions of one another in emotional situation. Pp. 153-181 in Patricia Noller and Mary Anne Fitzpatrick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England, and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 Heavy, C.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Higgins, E.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iggins, E.T. (1989). Self-discrepancy theory: What patterns of self-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93-136.
- Higgins, E.T., Vookles, J., & Tykocinski, O. (1992). Self and health: How "pattern" of self-beliefs predict types of emotional physical problem. Social Cognition, 10, 125-150.
- Holman, T. B., Larson, J. H., & Harmer, S. L. (1994). The developm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a new premarital assessment instrument: The PREPARation for Marriage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3, 46-52.

- Holman, T.B., Larson, J.H. & Larmer, S.L., (1994), The preparation for marriage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3, 46-52.
- Huston, T. L, & Vangelisti, A. L. (1991). Socioemotional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marital relationship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721-733.
- Kelly, E. L, & Conley, J. J. (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7-40.
- Kiecolt-Glaser, J.K., Malarkey, W.B., Chee, M., Newton, T., Cacioppo, J.T., Mao, H.Y.&Glaser, R. (1993). Negative behavior during marital conflict is associated with immunological down - regulation, Psychosomatic Medicine, 55, 395-409.
- Kirchler, E. (1988). Marital happiness and interaction in everyday surroundings: A time-sample diary approach for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375-382.
- Kirchler, E. (1989). Everyday life experiences at home: An interaction diary approach to assess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 311-336.
- Kurdek, L. A. (1991). Predictors of increases in marital distress in newlywed couples: A 3-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7,627-636.
- Kurdek, L. A. (1994).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gay, lesbian, heterosexual nonparent, and heterosexual parent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705-722.
- Kurdek, L. A. (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53-164.
- Kurdek, L. A. (1993). Predicting Marital Dissolution: A 5-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4. No. 2. 21-242.
- Larson, J. H. (1988). The Marriage Quiz: College students' beliefs in selected myths about marriage. Family Relations, 37, 3-11.
- Larson, J. H. (1992). "You're my one and only": Premarital counseling for unrealistic beliefs about mate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242-253.
- Larson, J.H., & Holman, T.B. (1994). Premarital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 228-237.
- Levenson, R.W., & Gottman, J.M. (1985). Physiological and affective predictors of change in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85-94.
- Lewis, R. A., & Spanier, E.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pp. 268-294. New York: Free Press.
- Margolin, G., Hattem, D., John, R. S., & Yost, K. (1985). Perceptual agreement between spouses and outside observers when coding themselves and a stranger dyad. Behavior Assessment, 7, 235-247.
- Markman, H. J., Duncan, S. W., Storaasli, R. D., & Howe, R. W. (1987). The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marital distres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K. Halweg & M. Goldstein(Eds.), Understanding major mental disorders:

- The contribution of family interaction research pp. 266-289. New York: Family Process.
- Markman, H.J., & Hahlweg, K. (1993). The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marital distres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29-43.
- Markman, H. J., Renick, M. J., Floyd, F. J., Stanley, S. M., & Clements, M. (1994). Preventing marital distres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training: A 4-or 5-year follow-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70-77.
- Markman, H.J., Stanley, S. & Blumberg, S.L.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 Martin, T. C., & Bumpass, L. L (1989). Recent trends in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26, 37-51.
- McLanahan, S. (1988). Family structure and dependency: Reproducing the female-headed family. Demography, 26, 37-51.
- McLanahan S., & Bumpass, L. (1988). Intergenerational consequences of family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30-152.
- Miller, S., Nunnally, E., & Wackman, D. (1975). Alive and aware. Minneapolis, M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ogram.
- Mott, F. L., & Moore, S. F. (1979). The causes of marital disruption among American women: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355-365.
- Newcomb, M. D., & Bentler, P. M. (1981). Marital breakdown. In S. Duck & R. Gilhour (Eds.), Personal relationships: Vol. 3, Personal relationships in disorder(pp. 57-94). New York: Academic Press.
- Noller, P. (1984). Nonverb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eraction. Oxford: Pergamon.
- Noller, P., & Callan, V.J. (1989). Communication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n Family Studies Conference, Ballarat, Victoria.
- Noller, P., Feeney, J. A., Bonnell, D., & Callan, V. J. (1994). A longitudinal study of conflict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233-252.
- Noller, P., & Fitzpatrick, M.A. (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32-843.
- Notarius, C., Markman, H., & Gottman, J.M. (1983). Advances in the couples' interaction scoring system. in E. Filsinger (Eds.).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Beverly Hills, CA: Sage.
- Notarius, C., & Pellegrini, D.S. (1987). Differences between husbands and wive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marital discord. In K. Hahlweg & M. Goldstein, Understanding major mental disorder: The contribution of family interaction research. New York: Family Process Press.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 Olson, D. (1977). Insiders' and outsiders' view of relationships. Pp. 115-136 in George Levinger and Harold Raush (Eds.), Close Relationship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Renick, M. J., Blumberg, S. L. & Markman H. J.(1992). The 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PREP): An empirically based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 for couples, Family

- Relations, 41, 141-147.
- Revenstorf, D.B., Vogel, C.W., Hahlweg, K., & Shindler, L. (1980). Escalation phenomena in interaction sequences: An empirical comparison of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Behavior Analysis and Modification, 4, 97-115.
- Ridley, C.A., Jorgensen, S.R., Morgan, A.G., & Avery, A.W. (1982). Relationship enhancement with premarital couples: An assessment of effects on relationship qu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0, 41-48.
- Sabatelli, R.M. (1988). Measurement issues in marital research: A review and critique of contemporary survey instru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891-915.
- Schaap, C., Bram, B., & Ada, K. (1988). Marital conflict resolution. Pp. 203-244 in Patricia Noller and Mary Anne Fitzpatrick (eds.), Perspective on Marital Interaction. Clevedon, England, and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 Schafer, R. B., Wickrama, K.A. Wickrama, S. & Patrici K. M. (1996). Self-concept discontinua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167-177.
- Schumm, W.R. (1991). Intimacy and family values. In J. Touliatos, Perlmutter, B.F., & Staus, M.A. (Eds). Handbook of family measurement techniques. Newbury: Sage Publications.
- Schumm, W. R., Paff-Bergen, L. A. Hatch, R. C., Obiorah, F. C., Copeland, J. E., Meens, L. D., & Bugaighis, M. A.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8.
- Spainer, G. B. (1976). Measuring dynamic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tachmann, R. F., & Hiebert, W. J. (1987). Premarital counseling: The Professional's handbook (2nd Ed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Stanley, S.M., Markman, H.J., St. Peters, M., & Leber, B.D. (1995). Strengthening marriages and preventing divorce: New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Family Relations, 44, 392-401.
- Sweet, J. A., & Bumpass, L. L. (1988). American families and household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Terman, L. H., & Oden, M. H. (1947).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4. The gifted child groups up.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ing-Toomey, S. (1983). An analysis of verbal communication patterns in high and low marital adjustment group.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9, 306-319.
- Vailant, G. E. (1978).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VI. Correlates of successful marriage and father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5, 653-659.
- Wamboldt, F. S., & Reiss, D. (1989). Defining a family heritage and a new relationship: Two central themes in the making of a marriage. Family Process, 28, 317-335.
- Weiss, R. L. & Summers, K. (1983). The Marital Interaction Coding System III Pp 85-115 in Erik E. Filsinger (ed.),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Beverly, Hills, CA: Sage.
- Whyte, M. K. (1990). Dating, mating, and marriag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Worrell, J. (1988). Women's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 477-498.
- Zeller, R.A., & Carmines, E.G. (1980). Measurement in the socia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